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자

증산투쟁에서 틀어진 중심고리 석 달과 40일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나라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서 굴진을 앞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석탄생산을 대폭 늘이고있다.

위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총공격전의 성피어부는 전적으로 혁명의 지휘실원의 우리 일군들이 어떻게 일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올해 연합기업소일군들의 사업에서는 주목되는 문제가 있다. 올해를 굴진을 속 앞세워 석탄생산량을 확고히 올려놓는 해로 정하고 여기에 역량을 집중하는것이다. 여기에는 강성대국의 대문을 앞장에서 열어가는 려는 연합기업소일군들과 탄부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가 반영되어있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 높이 지날때 연합기업소에서는 기본전술인 채탄증대를 강화하여 석탄생산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채탄증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월미도의 영웅선사들이 지녔던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증산투쟁을 벌려주는 문제를 제기하고 예술영화 《월미도》에 대한 실호모임을 가지면서 탄부들의 정신력을 폭발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이와 함께 연합기업소의 당, 행정일군들이 한계 채탄증대적 말고 내려가 탄부들과 함께 일하면서 기술적지도를 적극 안 받침하여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였다.

올해에 들어 연합기업소에서는 채탄증대에 대한 생산지도와정에 찾은 경험에 비추어 굴진을 앞세우는 사업에서의 중요고리를 굴진소대를 강화하는데서 찾았다. 그리하여 연합기업소의 당, 행정일군들은 한계 채탄증대적 말고 내려가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굴진을 내밀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그 대표적예의 하나가 다시 정한 굴진소대문제이다. 연합기업소일군들은 현장지도과정에 갠던위에서 반복채굴구역에

대한 굴진을 계획에 반영하여 실적을 올린것을 비롯하여 일련의 현명한 문제들을 알게 되었다. 물론 반복채굴구역에 대한 굴진도 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순위는 방법으로 굴진을 하려고 하는것은 언제나 가도 탄광들에서 석탄을 캐고자 하는 열의를 품고 있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순위는 방법으로 굴진을 하려고 하는것은 언제나 가도 탄광들에서 석탄을 캐고자 하는 열의를 품고 있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순위는 방법으로 굴진을 하려고 하는것은 언제나 가도 탄광들에서 석탄을 캐고자 하는 열의를 품고 있어서는 안된다.

이밖에도 탄광들에서 능력있는 굴진소대에 역량을 집중하지 않아 더 거둘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있는 탄광도 적지 않다. 연합기업소일군들은 여기에 교훈을 받고 굴진소대의 구체적인 실정를 토대로한 기초작업은 지난해에 비해 훨씬 늘어나고 되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계획수행에서 앞서나가는 굴진소대들에

대한 굴진을 계획에 반영하여 실적을 올린것을 비롯하여 일련의 현명한 문제들을 알게 되었다. 물론 반복채굴구역에 대한 굴진도 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순위는 방법으로 굴진을 하려고 하는것은 언제나 가도 탄광들에서 석탄을 캐고자 하는 열의를 품고 있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순위는 방법으로 굴진을 하려고 하는것은 언제나 가도 탄광들에서 석탄을 캐고자 하는 열의를 품고 있어서는 안된다.

이밖에도 탄광들에서 능력있는 굴진소대에 역량을 집중하지 않아 더 거둘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있는 탄광도 적지 않다. 연합기업소일군들은 여기에 교훈을 받고 굴진소대의 구체적인 실정를 토대로한 기초작업은 지난해에 비해 훨씬 늘어나고 되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계획수행에서 앞서나가는 굴진소대들에

대한 굴진을 계획에 반영하여 실적을 올린것을 비롯하여 일련의 현명한 문제들을 알게 되었다. 물론 반복채굴구역에 대한 굴진도 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순위는 방법으로 굴진을 하려고 하는것은 언제나 가도 탄광들에서 석탄을 캐고자 하는 열의를 품고 있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순위는 방법으로 굴진을 하려고 하는것은 언제나 가도 탄광들에서 석탄을 캐고자 하는 열의를 품고 있어서는 안된다.

이밖에도 탄광들에서 능력있는 굴진소대에 역량을 집중하지 않아 더 거둘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있는 탄광도 적지 않다. 연합기업소일군들은 여기에 교훈을 받고 굴진소대의 구체적인 실정를 토대로한 기초작업은 지난해에 비해 훨씬 늘어나고 되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계획수행에서 앞서나가는 굴진소대들에

대한 굴진을 계획에 반영하여 실적을 올린것을 비롯하여 일련의 현명한 문제들을 알게 되었다. 물론 반복채굴구역에 대한 굴진도 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순위는 방법으로 굴진을 하려고 하는것은 언제나 가도 탄광들에서 석탄을 캐고자 하는 열의를 품고 있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순위는 방법으로 굴진을 하려고 하는것은 언제나 가도 탄광들에서 석탄을 캐고자 하는 열의를 품고 있어서는 안된다.

이밖에도 탄광들에서 능력있는 굴진소대에 역량을 집중하지 않아 더 거둘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있는 탄광도 적지 않다. 연합기업소일군들은 여기에 교훈을 받고 굴진소대의 구체적인 실정를 토대로한 기초작업은 지난해에 비해 훨씬 늘어나고 되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계획수행에서 앞서나가는 굴진소대들에

대한 굴진을 계획에 반영하여 실적을 올린것을 비롯하여 일련의 현명한 문제들을 알게 되었다. 물론 반복채굴구역에 대한 굴진도 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순위는 방법으로 굴진을 하려고 하는것은 언제나 가도 탄광들에서 석탄을 캐고자 하는 열의를 품고 있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순위는 방법으로 굴진을 하려고 하는것은 언제나 가도 탄광들에서 석탄을 캐고자 하는 열의를 품고 있어서는 안된다.

이밖에도 탄광들에서 능력있는 굴진소대에 역량을 집중하지 않아 더 거둘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있는 탄광도 적지 않다. 연합기업소일군들은 여기에 교훈을 받고 굴진소대의 구체적인 실정를 토대로한 기초작업은 지난해에 비해 훨씬 늘어나고 되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계획수행에서 앞서나가는 굴진소대들에

대한 굴진을 계획에 반영하여 실적을 올린것을 비롯하여 일련의 현명한 문제들을 알게 되었다. 물론 반복채굴구역에 대한 굴진도 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순위는 방법으로 굴진을 하려고 하는것은 언제나 가도 탄광들에서 석탄을 캐고자 하는 열의를 품고 있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순위는 방법으로 굴진을 하려고 하는것은 언제나 가도 탄광들에서 석탄을 캐고자 하는 열의를 품고 있어서는 안된다.

이밖에도 탄광들에서 능력있는 굴진소대에 역량을 집중하지 않아 더 거둘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있는 탄광도 적지 않다. 연합기업소일군들은 여기에 교훈을 받고 굴진소대의 구체적인 실정를 토대로한 기초작업은 지난해에 비해 훨씬 늘어나고 되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계획수행에서 앞서나가는 굴진소대들에

북천탄광 봉천쟁 채탄 5중대막장에서

위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은 무엇보다도 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남김없이 분출되어야 하며 대고조의 불길도 경제건설에서부터 더욱 세차게 라올라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봉천쟁 봉천쟁 채탄 5중대의 지하막장에 서 있다. 지어 여기서는 중대의 2소대원들이 불꽃튀는 증산투쟁을 벌리고 있다.

승백대기로 탄력을 털어내는 채탄공들, 꼬리를 물고 연속 들어타는 탄부들... 일마후 탄부가 조구를 가까이 하자 석탄이 쏟아져내린다. 이윽고 석탄을 푸드기 실은 여러대의 탄차들을 꼬리에 단 전차는 바람을 일으키며 쏟아져내린다.

공동사설의 전투적업무를 받치고 드넓은 공터에서 올해 들어와 메달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온 소대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현진도 위훈창조로 탄광을 막장

마치 전차운동장과 경쟁이 마치 하듯 기쁜 탄력을 마주한 한호철, 최덕수, 원호영 등우들의 일선에서 불이 이는 못있다.

잠깐사이에 일자리가 폭 폭 나서며 또다시 조구통에 석탄이 무뚝뚝 쌓인다.

눈짓, 손짓을 하며 동작을 드리는 탄부들은 그대들 더더욱 바빠 돌아간다.

한대의 석탄이라도 더 캐기 위하여 일선을 다그치는 그들의 모습은 볼수록 미묘하다.

어느 사이에 빈 탄차들이 다시 끌고 들어온 전차운전공이 조구를 툇족 치며 이제 한랑만 더 하면 오늘계획을 150%로 넘쳐 수행한다고 기쁨에 넘쳐 말한다. 이 소식은 탄부들의 사기를 더욱 높여준다.

조선은 결실하면 한다는 철칙같은 신념이 있어 미더운 탄부들의 위훈은 탄선에 그토록 자랑스럽게 새겨지고 석탄들은 날라다. 시간마다 더더욱 높이 솟아나고 있다.

본사기자 강명일

탄 전 의 숨 결

2. 8 직동청년탄광에서

위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석탄은 공업의 식량이며 석탄공업은 인민경제의 생명선입니다.》

막장들이 이루어지는 혁신적인 성과를 알리는 소식이 꼬리를 물고 날아드는 여기는 2. 8 직동청년탄광 종합생산지령실이다.

따르릉, 따르릉... 연방 전화종소리가 울려온다.

《생산지령실입니다. 12중 채탄 1중대 오늘계획을 170%, 9중 채탄 2중대 178%로... 축하합니다.》

전화를 받기에 드라본 지령원 송창호동무와 정개발동무의 하루생산실적을 종합하는 계산원이 속삭이는 소리가 울려온다.

《정말 인텔입니다. 이 전화종소리가 울리면 때가 제일 기분 좋습니까?》

지령원은 쾌대변생산실적이 종합되는 이 시간이 제일 바쁘면서도 탄전을 지켜선 보람을 한껏 느끼게 되는 때라고 하면서 흥분된 심정으로 말하였다.

비록 석탄생산으로 들끓는 막장은 지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어도 혁신의 불길같이 집중같이 내달리는 이곳 탄부들의 달아나듯 투쟁열기를 심장으로 느낄수 있는 지령실이었다.

열정적으로 전화를 받는 지령원의 모습을 보노라니 불현듯 열마진 우리가 찾았던 김영택고속도굴진소대의 전투현장이 눈앞에 안겨졌다.

“면 후남에도 오늘을 멋있게 추억할수 있게 굴진속도를 더욱 높이자.”

엄격한 자연과의 투쟁을 동반하는 속에서도 탄부들은 뜨거운 열망, 한의 석탄이라도 더 증산하여 비약하는 조국의 숨결을 더해주시려는 하나의 지향을 안고 전진속도를 높이고있다. 바로 그런 불같은 열정을 안고 서로

본사기자

국가과학원 지질학연구소에서

나라의 재부를 늘이기 위하여 탐구의 길을 묵묵히 걷는 사람들이 있다. 누가 모진말길 불러는 총창과 예국의 마음으로 땅속에 묻혀있는 자연부원을 찾아내어 조국과 인민의 귀중한 재부를 마련해가는 이들이 바로 국가과학원 지질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이다.

위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질학은 지질학 분야를 알아내고 지하자원을 찾아내어 나라의 재부를 끊임없이 늘이며 인민경제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학문상적으로 하여 지질학 연구소 과학자들의 연구성과는 눈에는 크게 띄이지 않았으나 당장 먹을 볼수 있는것은 더욱 아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남달리 승고한 자각이 있다.

군대가 전투를 하자면 정찰을 앞세워야 하는것처럼 자연을 정복하고 경제건설을 하자면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워야 하며 그러자면 지질학자들이 자기들이 먼저 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든든히 담보하여야 하는것이였다.

이런 과학자들이기에 사람들의

국가과학원 지질학연구소에서

나라의 재부를 늘이기 위하여 탐구의 길을 묵묵히 걷는 사람들이 있다. 누가 모진말길 불러는 총창과 예국의 마음으로 땅속에 묻혀있는 자연부원을 찾아내어 조국과 인민의 귀중한 재부를 마련해가는 이들이 바로 국가과학원 지질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이다.

위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질학은 지질학 분야를 알아내고 지하자원을 찾아내어 나라의 재부를 끊임없이 늘이며 인민경제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학문상적으로 하여 지질학 연구소 과학자들의 연구성과는 눈에는 크게 띄이지 않았으나 당장 먹을 볼수 있는것은 더욱 아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남달리 승고한 자각이 있다.

군대가 전투를 하자면 정찰을 앞세워야 하는것처럼 자연을 정복하고 경제건설을 하자면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워야 하며 그러자면 지질학자들이 자기들이 먼저 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든든히 담보하여야 하는것이였다.

이런 과학자들이기에 사람들의

국가과학원 지질학연구소에서

나라의 재부를 늘이기 위하여 탐구의 길을 묵묵히 걷는 사람들이 있다. 누가 모진말길 불러는 총창과 예국의 마음으로 땅속에 묻혀있는 자연부원을 찾아내어 조국과 인민의 귀중한 재부를 마련해가는 이들이 바로 국가과학원 지질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이다.

위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질학은 지질학 분야를 알아내고 지하자원을 찾아내어 나라의 재부를 끊임없이 늘이며 인민경제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학문상적으로 하여 지질학 연구소 과학자들의 연구성과는 눈에는 크게 띄이지 않았으나 당장 먹을 볼수 있는것은 더욱 아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남달리 승고한 자각이 있다.

군대가 전투를 하자면 정찰을 앞세워야 하는것처럼 자연을 정복하고 경제건설을 하자면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워야 하며 그러자면 지질학자들이 자기들이 먼저 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든든히 담보하여야 하는것이였다.

이런 과학자들이기에 사람들의

국가과학원 지질학연구소에서

나라의 재부를 늘이기 위하여 탐구의 길을 묵묵히 걷는 사람들이 있다. 누가 모진말길 불러는 총창과 예국의 마음으로 땅속에 묻혀있는 자연부원을 찾아내어 조국과 인민의 귀중한 재부를 마련해가는 이들이 바로 국가과학원 지질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이다.

위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질학은 지질학 분야를 알아내고 지하자원을 찾아내어 나라의 재부를 끊임없이 늘이며 인민경제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학문상적으로 하여 지질학 연구소 과학자들의 연구성과는 눈에는 크게 띄이지 않았으나 당장 먹을 볼수 있는것은 더욱 아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남달리 승고한 자각이 있다.

군대가 전투를 하자면 정찰을 앞세워야 하는것처럼 자연을 정복하고 경제건설을 하자면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워야 하며 그러자면 지질학자들이 자기들이 먼저 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든든히 담보하여야 하는것이였다.

이런 과학자들이기에 사람들의

국가과학원 지질학연구소에서

나라의 재부를 늘이기 위하여 탐구의 길을 묵묵히 걷는 사람들이 있다. 누가 모진말길 불러는 총창과 예국의 마음으로 땅속에 묻혀있는 자연부원을 찾아내어 조국과 인민의 귀중한 재부를 마련해가는 이들이 바로 국가과학원 지질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이다.

위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질학은 지질학 분야를 알아내고 지하자원을 찾아내어 나라의 재부를 끊임없이 늘이며 인민경제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학문상적으로 하여 지질학 연구소 과학자들의 연구성과는 눈에는 크게 띄이지 않았으나 당장 먹을 볼수 있는것은 더욱 아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남달리 승고한 자각이 있다.

군대가 전투를 하자면 정찰을 앞세워야 하는것처럼 자연을 정복하고 경제건설을 하자면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워야 하며 그러자면 지질학자들이 자기들이 먼저 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든든히 담보하여야 하는것이였다.

이런 과학자들이기에 사람들의

괴뢰군부호전광들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조선인민군 전선서부지기사령관 기자의 질문에 대답

【평양 3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최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반공화국심리전책동이 극도에 이르렀다.

괴뢰군부호전광들은 25일과 26일 약정보수단체들을 배행도에 끌어들여 반공화국배라 수심만장과 불한한 동영상 자료를 수록한 USB기억기, 니컬한 1US\$지폐 등을 넣은 가방을 우리측 지역으로 돌려 보내고자 작정하고있다.

괴뢰군부호전광들은 지난 3월 초순에도 보수적인 민간단체들을 내세워 립민관에서 반공화국배과탈출을 강행하다가 남조선의 진보적인사들과 현지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쳐 무모한 계획을 취소한바 있다.

괴뢰군부호전광들이 우리의 거둬들이는 계통을 외면하고 장소를 변경시키면서까지 배라살포에 계속 방방하고있는것은 저들의 반공화국배결정책에 변함이 없으며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겠다는것을 공식 선포한것으로 된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인민군 전선서부지기사령관은 2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우리 군대는 이미 괴뢰군부호전광들의 배라살포지점을 비롯하여 반공화국심리전책등에 대한 직접적조종과사격탄격을 천명하였다.

그것은 군사적전제에서 볼 때

조국의 재부를 늘여가는 미더운 과학자들

국가과학원 지질학 연구소에서

나라의 재부를 늘이기 위하여 탐구의 길을 묵묵히 걷는 사람들이 있다. 누가 모진말길 불러는 총창과 예국의 마음으로 땅속에 묻혀있는 자연부원을 찾아내어 조국과 인민의 귀중한 재부를 마련해가는 이들이 바로 국가과학원 지질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이다.

위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질학은 지질학 분야를 알아내고 지하자원을 찾아내어 나라의 재부를 끊임없이 늘이며 인민경제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학문상적으로 하여 지질학 연구소 과학자들의 연구성과는 눈에는 크게 띄이지 않았으나 당장 먹을 볼수 있는것은 더욱 아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남달리 승고한 자각이 있다.

군대가 전투를 하자면 정찰을 앞세워야 하는것처럼 자연을 정복하고 경제건설을 하자면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워야 하며 그러자면 지질학자들이 자기들이 먼저 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든든히 담보하여야 하는것이였다.

이런 과학자들이기에 사람들의

세계 물의 날에 즈음한 행사 진행

출연자들은 물자원을 보호 관리하기 위한 사업에서 우리 인민이 거둔 성과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물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물자원의 보전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깨끗한 먹이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우리 나라 과학연화 《자연트롬시상수도》를 보았다.

파키스탄의 날에 즈음하여 파키스탄특별명전대사 연회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였으며 존경하는 이씨로 알려진 자르다리 대령명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한편 기술적으로 여러가지 첨가제들을 잘 배합하여 그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다른 작업반들에서도 노력조작을 잘하고 운반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원료보장을 따라세우고있다.

로동총원원 최 창 름

새 학년도를 앞두고 학교후원사업 활발

강원도에서 학교후원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일군들이 앞장에서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도와 시, 군의 일군들은 교육사업을 돕는것을 응당한 일로 여기고 학군들을 찾아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본대 기초하여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관공이 학교후원사업을 잘 하고있다. 군에서는 정보산업사업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교육조건을 탄탄히 보강할 목적으로 새교구 배부사업의 컴퓨터와 투화기, TV 등을 여러 학교들에 보내주었다.

【조선중앙통신】

휴보산비료생산에 큰 힘을

우리군 가하협동농장에서 휴보산비료생산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농장일군들은 영웅선전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확증된 휴보산비료를 더 많이 생산할 대담한 목표를 제기하고

그 수행을 위한 조직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제2작업반의 농장원들이 휴보산비료생산에서 앞장서고있다. 그들은 휴보산비료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충분히 마련하는

세계 물의 날에 즈음한 행사 진행

출연자들은 물자원을 보호 관리하기 위한 사업에서 우리 인민이 거둔 성과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물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물자원의 보전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깨끗한 먹이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우리 나라 과학연화 《자연트롬시상수도》를 보았다.

파키스탄의 날에 즈음하여 파키스탄특별명전대사 연회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였으며 존경하는 이씨로 알려진 자르다리 대령명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한편 기술적으로 여러가지 첨가제들을 잘 배합하여 그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다른 작업반들에서도 노력조작을 잘하고 운반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원료보장을 따라세우고있다.

로동총원원 최 창 름

새 학년도를 앞두고 학교후원사업 활발

강원도에서 학교후원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일군들이 앞장에서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도와 시, 군의 일군들은 교육사업을 돕는것을 응당한 일로 여기고 학군들을 찾아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본대 기초하여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관공이 학교후원사업을 잘 하고있다. 군에서는 정보산업사업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교육조건을 탄탄히 보강할 목적으로 새교구 배부사업의 컴퓨터와 투화기, TV 등을 여러 학교들에 보내주었다.

【조선중앙통신】

세계 물의 날에 즈음한 행사 진행

출연자들은 물자원을 보호 관리하기 위한 사업에서 우리 인민이 거둔 성과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물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물자원의 보전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깨끗한 먹이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우리 나라 과학연화 《자연트롬시상수도》를 보았다.

파키스탄의 날에 즈음하여 파키스탄특별명전대사 연회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였으며 존경하는 이씨로 알려진 자르다리 대령명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한편 기술적으로 여러가지 첨가제들을 잘 배합하여 그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다른 작업반들에서도 노력조작을 잘하고 운반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원료보장을 따라세우고있다.

로동총원원 최 창 름



혁명적대고조의 불길 높이 석탄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북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남덕탄광에서- 김진명 찍음

항금산과 더불어 꽃피는 창조의 기쁨, 보람찬 생활

절세 위인들의 불멸의 자욱이된 영광의 땅 창성군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우리 조국, 김일성조선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기 위한 총진군의 나팔소리를 힘차게 울리며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켜나가고 있습니다.》

얼마전 우리는 창성군을 찾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력사적인 지방 및 경제일군 창성현석회가 진행된 뜻깊은 고장이며 중앙공업과 함께 지방공업을 다같이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는 창성.

지난해 11월 경에하는 장군님께서는 또다시 창성군을 찾으시어 군안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창성군을 더욱 살기 좋은 사회주의선진으로 건설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확실히 밝혀주시었다.

지금 온 창성땅이 부글부글 끓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 말씀습을 철저히 관철하여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고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잘 리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할 의지에 넘친 창성사람들의 투쟁과 생활은 얼마나 희망차고 보람에 넘친것이냐.

《다음해에 꼭 다시 와보십시오》

창성의 풍경은 폼뽀러면 제일 먼저 가을풍경을 꼽아야 할 것이다. 도토리들과 갖이 산마타에 주렁주렁 머루나 다래야 나 맛 좀 보자 새빨간 산딸기야 너도 좀 보자라는 노래를 흥겹게 부르며 바구니가 칠칠 넘치게 산딸매 따들이는 처녀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창성의 가을은 얼마나 아름답고 정서적이었는가. 그러한 가을을 아직 멀리 앞에 둔 이른봄에 창성을 찾은 우리의 눈앞에 보다 많이 좋은 매미로 즐락거리며 창성으로 들끓는 창성땅의 모습이 비껴쳐 안겨왔다.

《지난해 우리 창성을 찾은 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안의 지방공업장들을 돌아보시면서 창성군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높이 받들고 지방공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지방인민 생활을 풍요롭게 해 줄데 대한 뜻과 아울러 창성사람들이 더 좋은 매미에 대한 신심과 탄력에 넘쳐있었다. 다음해에 꼭 다시 와보십시오.》

그 옛날 공벽하고 지지리도 못하는 고장이어서 방상에 고정해서 도토리죽그릇밖에 놓지 못하던 창성, 입고나설 옷조차 없애놓은 창성이야말로 문밖을 나갔고 앞을 봐도 산, 뒤를 봐도 산, 온통 산천이어서 별방을 찾아 사람들이 너도나도 떠나 가던 창성 땅.

그러하던 창성 땅에 전변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는분은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다 합치면 1년도 넘는 389일간의 창성군현지지도에 바치시면서 5만 400여나 되는 길을 걸고 걸으신 우리 수령님의 그 헌신의 자욱이서 창성의 어느곳엔 채 새겨지지 않았다. 군민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각종 식료품들. 여러가지 직물제품들과 뜨개옷들. 그것들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는 우리에게 농단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의 령명 100%와 력사적인 지방 및 경제일군창성현석회의 50%를 맞는 다음해까지 수행할 목표를 통틀어 크게 세우고 그 실행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창성사람들은 더 좋은 매미에 대한 신심과 탄력에 넘쳐있었다. 다음해에 꼭 다시 와보십시오.》 창성!

그 옛날 공벽하고 지지리도 못하는 고장이어서 방상에 고정해서 도토리죽그릇밖에 놓지 못하던 창성, 입고나설 옷조차 없애놓은 창성이야말로 문밖을 나갔고 앞을 봐도 산, 뒤를 봐도 산, 온통 산천이어서 별방을 찾아 사람들이 너도나도 떠나 가던 창성 땅.

그러하던 창성 땅에 전변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는분은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다 합치면 1년도 넘는 389일간의 창성군현지지도에 바치시면서 5만 400여나 되는 길을 걸고 걸으신 우리 수령님의 그 헌신의 자욱이서 창성의 어느곳엔 채 새겨지지 않았다. 군민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많은 산들이 창성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보배산, 항금산으로 되게 하시려 몹소 힘찬 산밭을 뚫고 골짜기의 넝쿨속을 헤치시던 어버이수령님. 우리의 수령님의 그날의 헌신의 자욱이서 창성사람들의 행복한 생활이 꽃피어났어 아 니냐. 하지만 우리 수령님의 뜻대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대로 창성을 더욱 살기 좋은 사회주의 선진으로 만들자면 아직도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밤을 흘려야 한다고 창성사람들은 말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성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가르치심들은 이곳 사람들의 리상과 포부를 비할바없어 높여 주었다.

식료공장에 가보아도 높은 목표를 안고 뛰고 또 뛰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열된 모습을 볼수 있었고 직물공장에서 도 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땀흘리는 노동자들을 볼수 있었다. 우리가 옥포출산전원협동농장을 찾았을 때였다. 해발높이가 1400여m나 되는 비배봉에서 울려나오는 구슬같은 맑은 물이 마을을 감돌아 흐른다고 하여 그 이름도 옥포리라 불리우는 곳에 자리 잡고있는 창성의 청년출산작업단은 선진시대에 산골농장 축산기지의 본보기라고도 할수 있을만큼 최첨단하게 꾸러져

내 고향의 산울림

자기 고장에서 일어나는 전 변을 두고 창성사람들은 내 고향의 산울림이라고 말한다. 내 고향의 산울림! 얼마나 뜻깊고 평민적인 말인가. 창성의 곳곳에서 산울림이 울려나온다. 그것은 현실이 일어나는 소리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창성식료공장에서 내 고향의 산울림소리가 요란히 울리고있다. 50여년전 8명의 학생들이 망목과 독을 들고 수공예품으로 장을 놓고 그것 만들던 곳에 지금은 수천명에 달하는

창성군 특성에 맞게 산을 잘 리용하여 원료극정을 보이며 제 고장 특산물들을 평평 생산해낼 때면 얼마나 자랑스럽게 모뎀니다. 산을 걷고든 군대에서 창성에서처럼 한다면 인민생활에 적극 이바지 할수 있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장에 와서 경험을 배워가곤 합니다. 우리와 만난 지메인 김영옥 동무는 이렇게 말하면서 공장에서는 지금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산과리가공에서 패턴을 톱 하는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이고있다고 하였다.

금야리의 《항석》, 《금단》이들

창성군에는 경희국 《산울림》의 주인공처럼 사회주의농촌의 참된 주인이 될 결의를 안고 선인간의 농장들을 앞세워 내린 제대군인들이 있다. 금야리 협동농장 제 3작업단 1분조 선동원인 백현철동무도 그들중 한 사람이다. 금야리에 온 날 백현철동무는 경희국 《산울림》의 주인공 황석철이처럼 금야리의 높은 산밭들을 향해 목청껏 소리쳤다. 《황금산야!》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금야리를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꽃피게끔 결심한 담근 그 목소리에 보답하듯 창성의 황금산, 화산밭에 산울림소리가 세차게 메어리쳤다. 그는 이렇게 금야리에 제대 배낭을 풀었다. 그러나 병사의 신념에는 풀지 않았다. 그는 농장에 온 첫날부터 일손을 잡았다. 무슨 일이나 결사적으로 해 가는 것이 정녕 제대군인이었다. 일할일이 오면 오라를 열고 남다른 노고를 부르는 데 그야말로 명장이었다. 포수가 크고 열정적이며 정다정한 그를 농장원들은 우리 금야리의 《항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모든 사업과 생활을 경희국 《산울림》

밑에 창성군의 직물공장과 종이공방, 가구공장을 비롯 한 모든 지방공업장들에서 전 변의 불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있었다. 《비약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 높이, 더 빨리 내달리자 이것이 우리들의 한결같은 열의입니다. 우리 공장은 최첨단들과의 산울림을 세차게 울리고 있습니다.》 공장의 일군인 여인남동무의 이야기였다. 자연의 산울림은 매아리로 끝나지만 위대한 창조의 산울림은 빛나는 현실을 안아오고 휘황한 미래를 펼친다. 창성땅에 울리는 내 고향의 산울림은 비약의 내 고향, 최첨단들과의 산울림, 승리와 번영의 산울림이다.

금야리의 《항석》, 《금단》이들

창성군에는 경희국 《산울림》의 주인공처럼 사회주의농촌의 참된 주인이 될 결의를 안고 선인간의 농장들을 앞세워 내린 제대군인들이 있다. 금야리 협동농장 제 3작업단 1분조 선동원인 백현철동무도 그들중 한 사람이다. 금야리에 온 날 백현철동무는 경희국 《산울림》의 주인공 황석철이처럼 금야리의 높은 산밭들을 향해 목청껏 소리쳤다. 《황금산야!》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금야리를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꽃피게끔 결심한 담근 그 목소리에 보답하듯 창성의 황금산, 화산밭에 산울림소리가 세차게 메어리쳤다. 그는 이렇게 금야리에 제대 배낭을 풀었다. 그러나 병사의 신념에는 풀지 않았다. 그는 농장에 온 첫날부터 일손을 잡았다. 무슨 일이나 결사적으로 해 가는 것이 정녕 제대군인이었다. 일할일이 오면 오라를 열고 남다른 노고를 부르는 데 그야말로 명장이었다. 포수가 크고 열정적이며 정다정한 그를 농장원들은 우리 금야리의 《항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모든 사업과 생활을 경희국 《산울림》

의 주인공 황석철이처럼 해나 가는 그였던 것이다. 제방에서 제방을 가지고 제 손으로 행복의 열매를 안아오려는 한마음으로 그는 일감도 스스로 찾았고 분조는 맡겨진 과업도 앞장서서 해졌다. 포전들이 거름을 실어내던 어느날 선동원인 백현철동무는 휴식시간에 오락회를 열었다. 열정에 넘친 청년들의 심금을 흔든다. 그는 남다른 흥겨운 노래가사를 뽑았다. 작업반원들이 지칠새라 떠밀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곤 하는 그의 노래를 들으며 주인의정들을 비롯한 작업반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과연 우리 작업반의 보배라고 감탄하였다. 오락회가 활기를 띠자 백현철동무는 익살을 부리며 1분조장 진명승동무를 일으켜세웠다.

금야리의 《항석》, 《금단》이들

창성군에는 경희국 《산울림》의 주인공처럼 사회주의농촌의 참된 주인이 될 결의를 안고 선인간의 농장들을 앞세워 내린 제대군인들이 있다. 금야리 협동농장 제 3작업단 1분조 선동원인 백현철동무도 그들중 한 사람이다. 금야리에 온 날 백현철동무는 경희국 《산울림》의 주인공 황석철이처럼 금야리의 높은 산밭들을 향해 목청껏 소리쳤다. 《황금산야!》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금야리를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꽃피게끔 결심한 담근 그 목소리에 보답하듯 창성의 황금산, 화산밭에 산울림소리가 세차게 메어리쳤다. 그는 이렇게 금야리에 제대 배낭을 풀었다. 그러나 병사의 신념에는 풀지 않았다. 그는 농장에 온 첫날부터 일손을 잡았다. 무슨 일이나 결사적으로 해 가는 것이 정녕 제대군인이었다. 일할일이 오면 오라를 열고 남다른 노고를 부르는 데 그야말로 명장이었다. 포수가 크고 열정적이며 정다정한 그를 농장원들은 우리 금야리의 《항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모든 사업과 생활을 경희국 《산울림》

오락회가 끝나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하신 우리 금야리를 본 군시대의 아름다운 신진으로 본대있게 꾸리자는 백현철동무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렸다. 그의 호소에 작업반원들은 적극 호응해나섰다. 그들속에는 농장 처녀 안영애동무도 있었다. 그대일을 돌이켜보면서 안영애동무는 한숨을 금야리에 뿌리를 내리고 리상을 꽃피워갈 백현철동무의 뜻이 소중하고 정열에 넘치는 그 모습에 토틈

산촌에 넘치는 노래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창성땅의 자랑중의 하나가 노래자랑이다. 그러한 노래자랑은 창성군문화회관에도 한껏 넘치고있다. 창성군 문화회관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방 및 경제일군창성현석회의를 진행하신 뜻깊은 곳이다. 바로 이곳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50여년전 그 날애에 창성군에 예술조원들의 소박한 예술소공연을 보여주기도 해주셨었다. 그후에도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창성땅을 찾으시어 여리치며 창성군에서 창성군예술소공연을 보여주셨었다.

창성군문화회관 판정 허정숙 동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 하였다. 《지난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문화회관에서 창성군 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을 보아주시고 내용이 좋고 형식이 새로우며 당정책대거 뚜렷하다고, 평판한 공연이 참가하였는 것이 좋다는 과분한 치하의 말씀을 주시었습니다.》 예술소조원들중에는 평범한 농장원도 있고 공정의 로력한 신자도 있었으며 군당의 일군도 있었다. 우리는 그들이 회관무대에 펼친 예술소공연을 보았다. 대회사 《수령님과 장군님의 창성》, 《황금산야》, 국어사 《창성산울림》, 제창이작가 《황금나무 넘금나무 산애 심었소》... 공연은 어버이수령님과

여서 그와 일생을 같이할것을 약속했다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저도 경희국 《산울림》에 나오는 금단이 되여 현실동무와 함께 이 땅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가겠습니다.》 창성의 포부도 리상도 사랑도 경희국 《산울림》의 주인공 공들처럼 꽃피워가려는 지향으로 가슴 불태우는 금야리의 청년들.

우리에게는 그들모두가 창성땅의 래일을 아름답게 가꿔갈 미더운 창성의 《항석》, 《금단》이들로 안겨졌다.

산촌에 넘치는 노래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창성땅의 자랑중의 하나가 노래자랑이다. 그러한 노래자랑은 창성군문화회관에도 한껏 넘치고있다. 창성군 문화회관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방 및 경제일군창성현석회의를 진행하신 뜻깊은 곳이다. 바로 이곳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50여년전 그 날애에 창성군에 예술조원들의 소박한 예술소공연을 보여주기도 해주셨었다. 그후에도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창성땅을 찾으시어 여리치며 창성군에서 창성군예술소공연을 보여주셨었다.

창성군문화회관 판정 허정숙 동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 하였다. 《지난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문화회관에서 창성군 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을 보아주시고 내용이 좋고 형식이 새로우며 당정책대거 뚜렷하다고, 평판한 공연이 참가하였는 것이 좋다는 과분한 치하의 말씀을 주시었습니다.》 예술소조원들중에는 평범한 농장원도 있고 공정의 로력한 신자도 있었으며 군당의 일군도 있었다. 우리는 그들이 회관무대에 펼친 예술소공연을 보았다. 대회사 《수령님과 장군님의 창성》, 《황금산야》, 국어사 《창성산울림》, 제창이작가 《황금나무 넘금나무 산애 심었소》... 공연은 어버이수령님과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지를 철면이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국가가 책임지고 근로인민대중에게 보람찬 창조적생활을 마일것 누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해주고있습니다.》

높은 계급의식을 지니도록

동천기계공업안전 기 양원들과 근로자중에서 계급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교양사업은 짜고들어 진행해오았다. 지난 시기 이것 계급교양에서는 군당위원의 지도밑에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써 계급교양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여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계급적각을 깊이 심어주었다.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기

초하여 운영철, 윤리동무를 비롯한 계급교양원들과 강사들은 올해 정초부터 계급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려 구제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사업을 짜고들었다. 군당의 협동농장들에 내려간 이곳 일군들과 강사들은 들끓는 도전에서 계급과 정의를 맞게 계급교양이동해설강의를 참신하게 벌리었다. 구체적인 사실자료들을 가

높은 계급의식을 지니도록

초하여 운영철, 윤리동무를 비롯한 계급교양원들과 강사들은 올해 정초부터 계급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려 구제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사업을 짜고들었다. 군당의 협동농장들에 내려간 이곳 일군들과 강사들은 들끓는 도전에서 계급과 정의를 맞게 계급교양이동해설강의를 참신하게 벌리었다. 구체적인 사실자료들을 가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사는 사회주의 조국이다.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을 보자. 언제인가 미국에서 일류급으로 꼽히는 한 대학을 방문하였던 미국의 국제문제전문가는 대학생들의 무의에 아연실색하였다. 어느날 그가 한 대학생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에게 당대 나라의 현실을 보자. 이 조항이 마음에 드는가고 물었더니 그 학생은 왕정같이 한 고장에 있는 명예를 위해서도 그 헌법조항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대답하였다. 소가 웃다 푸마미되리던데 학생에게 질문을 하였던 사람은 입을 딱 벌리고말았다. 대학교는 아메리카대륙이 언제 발견되었는지 모르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고, 20%에 달하는 학생들이 카나리아대륙의 한개 주로, 아프리카대륙을 한개 나라

로 알고있는 한심한 형편이 있었다. 대학생들의 지식수준이 한심한 현실은 다른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류대학들의 지리지식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4%의 학생은 고등학교 44%의 학생들이 지도에서 이라크를 찾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러한 청년들을 가진 자본주의 사회의 미래가 어떠한다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남조선사람들은 대학교육을 두고 돈의 노예를 양육하는 망조가 돈 교육이라고 개탄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누구나 대학을 졸업하면 빚쟁이가 되고 만다. 자료에 의하면 졸업을 앞둔 전제 남조선대학생들은 대서부터 70% 이상이 막대한 빚을 지고있다고 한다. 빛을 진 리유는 재학기간 나날이 높아만지는 등록금때문이다. 하기에 대학을 졸업한

원수들은 악착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계급교양에서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계급주의와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교양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계급교양에서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계급주의와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교양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계급교양에서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계급주의와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교양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앞날과 암담한 미래

청년들은 빛을 갖기 위해 자리를 찾아 헤메고있으며 일자리마저 얻지 못한 청년들은 삶을 비판하며 자살도 서슴지 않고있다. 요형 일자리를 잡으면 대학기간에 진 빛을 갖기 위해 애를 쓰며 일하고있고 우월을 하나 발명해도 일자리를 때우지 않기 위해 하고있다. 이처럼 인간을 돈의 노예로 만드는 교육을 어찌 사회적인간을 길러내는 신성한 사명이라고 할수 있으며 이런 대학졸업생들에게 어떻게 람구의 열정과 높은 과학적성취를 바랄수 있겠는가. 부패한 자본주의사회에 교육을 두고 돈의 노예를 양육하는 교육이라고 규정하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원수들은 악착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계급교양에서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계급주의와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교양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계급교양에서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계급주의와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교양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애국편직물공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공업장들을 만반하로 돌리고 생산을 정상화하면 공장, 기업소에서 실비관리 잘하여야 합니다.》

원수들은 악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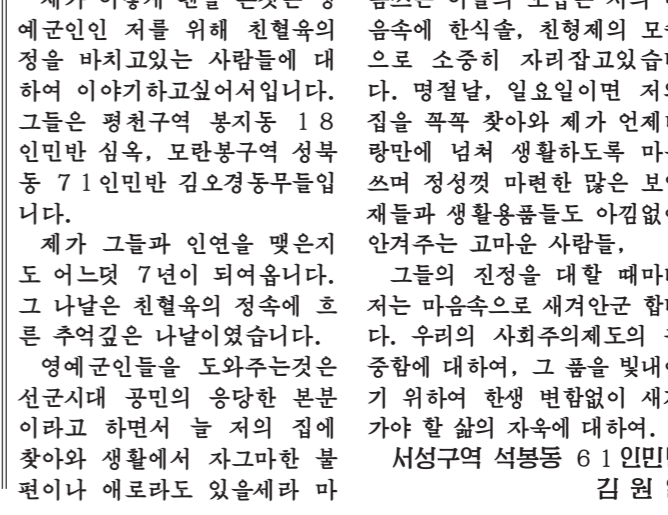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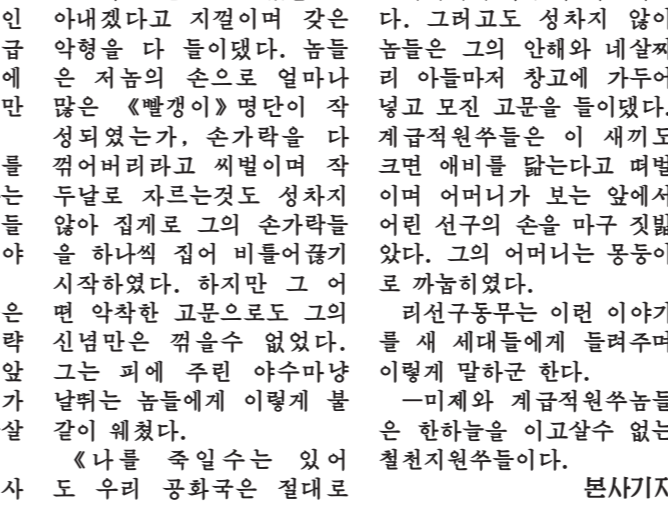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계급교양에서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계급주의와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교양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계급교양에서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계급주의와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교양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애국편직물공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공업장들을 만반하로 돌리고 생산을 정상화하면 공장, 기업소에서 실비관리 잘하여야 합니다.》

원수들은 악착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계급교양에서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계급주의와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교양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계급교양에서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계급주의와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도록 교양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일심단결의 무기와 주체조선의 힘

미군부대원들은 찍하면 우리 나라와의 컴퓨터모의전쟁을 벌이고있다. 컴퓨터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미국의 전쟁사관들은 군사분야에 컴퓨터를 리용하여 전쟁을 앞두고 쌍방간의 무력과 잠재력을 거역시키고 비교하며 승부를 판단하는 컴퓨터모의전쟁을 빈번히 하고있는것이다. 그들의 최대관심사는 우리 나라와 미국이 전쟁을 하면 어느쪽이 이길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때 패전의 쓴맛을 토했던 본 미국은 앞으로 새로운 조선전쟁을 감행하는 경우 그것이 되풀이되지 않았다는 것을 불안에 싸여 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나라와의 컴퓨터모의전쟁을 거듭하고있다. 그런데 어떤 거는 것은 우리 나라이다. 그 중요

한 비결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의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에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미호전세력들이 우리 나라와의 컴퓨터모의전쟁에서 미국이 패한다는 답이 나오자 대신의 힘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 신경을 모으고있었다. 한 일꾼의 보고를 받으시고 지금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두고 세계의 정치인들은 조선의 일심단결은 그 무엇으로도, 지어 원자탄으로도 깨뜨릴수 없다고 말하고있고있다. 이 위대한 일심단결의 무기야말로 주체조선의 힘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단결은 힘이고 혁명승리의 근본담보이다. 단결로부터 시작되고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전진하고 승리하는 것이 혁명이다. 세계의 수많은 정치가들과 장군들에게는 간결히 바라면 서로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인민대중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세우는것이다. 오직 탁월한 령도예술과 숭고한 인격을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나라에서 세계정치사에 전무후무한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대한 현실이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동지를 믿고 인민을 믿는 동지관, 인민관을 지니시고 혁명의 천만리길을 이어가신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믿음에 안고 산악악기 일떠나 일심단결의 힘으로 위대하는 장군님을 절사유위하여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견결히 옹

호수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고있다. 미제와 남조선호전파들이 《키리콜》,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전쟁연습들을 끊임없이 벌이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도발과 위협공작책동을 일삼고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일심단결된 힘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고 물거품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김정일장군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철같은 일심단결의 힘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 그 어떤 대적도 주체조선의 위대한 힘을 상대로 꺾지 못할 것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적들과의 대결전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떨칠것이다. 본사기자 김 종 손

자력갱생과 경제발전에 관한 주체사상전국토론회

파키스탄에서 진행

자력갱생과 경제발전에 관한 주체사상전국토론회가 19일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장전에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김일성주석의 존엄은 영원히 빛날것이다!》, 《위대한 불멸의 주체사상 만세!》 등의 구호들이 토론회장에 나붙어 있었다. 토론회에는 파키스탄인민당, 자력갱생연구협회, 카라치종합대학을 비롯한 정당, 단체, 기관의 인사들과 주체사상신봉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사회과학자협회대표단과 파키스탄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토론회에서는 파키스탄자력갱생연구협회 서기장 자베드 안사리의 기조보고에 이어 파키스탄인민당 부위원장 하셀 비젠조, 카라치종합대학 부총장 사나하 우르즈 카즈니 등이 연사자들이 토론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을 더욱 활발히 펴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란생 100돐을 뜻깊게 기념하며 자유롭고 번영하는 국가건설에 적극 기여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김정일은 주체사상의 창시자이며 자주시대의 개척자이신 김일성주석의 란생은 20세기 인류역사의 전례없는 사변이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을 절대로 굴복시키지 못할것이다

루정계인사 담화 발표
베루르동자, 농민, 학생인민 전선 위원장 해나로 케데스타 이스기예바가 미군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10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이 2012년 김일성주석의 란생 100돐을 가장 뜻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을 때에 제국주의자들은 또다시 사회주의조선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연습을 강행하고있다. 미국은 자기의 하수인인 남조선피뢰군을 침략전쟁연습에 내몰고있다. 미국과 남조선은 전쟁을 도발하려고 커다란 모험을 하고 있으나 조선인민을 절대로 굴복시키지 못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불패의 군사강국

매 히 요 신문의 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8축에 즈음하여 메히 요신문 《우나드나 나제오날》 15일부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전을 모시고 특집하였다. 신문은 《불패의 군사강국과 김정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것은 조선이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위용 떨칠수 있게 한 근본담보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불침의 최정예군으로 더욱 튼튼히 키우시었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시찰의 길을 걷고계신다. 그의 현지시찰의 자욱은 판문점초소와 1211고지에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중국에서
중국에서 지난해 전진무시수출을 힘있게 벌여 생태환경을 현저히 개선하였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 연 5억 9000만명의 각계층 주민들이 활동에 참가하여 26억 300만근의 각종 나무를 심었다. 한편 중국에서 제 1차 5개년계획기간 창고의간, 기술혁신, 발명 등의 형식으로 로동경쟁이 진행되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연 2억 1000만명의 로동자들이 참가하여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들의 기술혁신품들은 생산에 도입되어 나라의 경제사회발전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또한 중국 티베트자치구에서 앞으로 5년동안 인제양성사업을 강화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기관들의 교육조건을 개선하는것과 함께 새로운 인제양성기지를 내오고 운영하게 된다. 또한 공장, 기업소에서 과학기술보급사업도 적극 벌리게 된다. 계획이 실현되면 자치구에서 인제수가 32만 6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란에서
이란에서 공업부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쏟고있다. 19일 이란공민회 《사에게호》(우르) 전투기 1개 비행중대를 위촉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자기 개사기 1000명당 7명으로 줄어든다고 말하며, 그리하여 꾸바는 결핵환자 발생률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나라중의 하나로 되었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 통신

우리 나라의 5대혁명가극을 소개

18일 로씨야의 이페르-파스트 통신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지도밑에 창조된 5대혁명가극을 소개하였다. 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의 평양대극장에서 가극 《당의 참된 딸》 공연이 진행되었다. 독창과 합창으로 많이 불려지며 조선사람 모두가 알고있는 노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은 이 가극의 주제 가극이다. 가극은 1950-1953년 조국해방전쟁시기 생명의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비난

브라질대통령 델마 비나 로우페스가 19일 외교선상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이 브라질 상품들에 대해 무역장벽을 쌓고있는데 대해 언급하면서 그것을 자기만이 금융위기에

여러 나라들 협조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이 같은 날 중국과 말타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공습만행

파키스탄의 무성인 17명 성명을 발표하여 미군의 무차별적인 공습만행을 규탄하였다. 이스트라메르 국제인권센터 상공에 날아든 미군무기들이 미사일공격을 하여 40여명의 무고한 파키스탄인들 살해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그것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반인륜적범죄행위로 낙인찍었다. 본사기자

시 위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19일 반전시위가 벌어졌다. 이라크전쟁개시 8년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일어난 시위들에는 수많은 각계층 운동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반전주호를 웨치면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무

새로운 형의 태양전지 개발

어느 한 나라에서 최근 새로운 형의 태양전지를 개발하였다. 무정형 유기소막태양전지와 수지회 전지봉양방수관을 결합하여 만든 이 태양전지는 무게가 1㎡당 약 3kg으로서 현재 보급되고있는 태양전지판(약 10kg)에 비해 훨씬 가볍다. 또한 유연하기때문에 곡면이나 울퉁불퉁한 지붕에도 설치할수 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우려를 사아내기 생애필수품 위키

생물다양성은 지구상의 가장 큰 재부족의 하나이다. 생물다양성으로 하여 사람들은 식량과 옷, 목재, 의약품, 에너지를, 깨끗한 공기, 맑은 물을 비롯하여 생활에 필요한것들을 보충받는다. 생물다양성은 매개나 경제의 지속적발전과 세계환경보호, 지구생태계의 보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적인 범위에서 생물다양성의 손실은 자연생태계와 경제발전의 기초를 파괴하며 인간의 생존에 커다란 위협을 조성하고있다. 현지기 동식물멸종실태는 파국적이다. 자료에 의하면 1970-2000년 사이에 지구상에서 거의 40%에 달하는 동식물종들이 없어졌으며 특히 강과 호수, 습지에서 서식하던 생물종의 50%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까리브해연안지역에서는 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과 동맹관계 수립을 운운하는 미국에서 요즘 상대측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들이 빈번히 벌어지고있다. 그중의 하나가 《중국위협》설류이다.

정도와 군부는 물론 출판보도물들에서도 때때로 미국이 아시아지역에서 군사적우위를 추구하고있다는 소리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만약 어떤 중국의 군사력강화가 미국과 동맹국들에 《위협》을 조성하고있다면, 그것이 미중관계를 악화시킨다. 그에 대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니 워니 하는 여론들이 나돌고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일어난 미국에서 새 《국가안전전략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여기에서 미국은 중국과 미국의 군사관계문제에 대해 특별한 언급하면서 《중국군대의 현대화와 전략적도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중국이 우주, 네트워크공간과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자기를 지나치게 파신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은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이것은 명백히 중국을 넘어서 미국을 대결을 선포한것이나 다름없는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이 가만있을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중국위협》설

일촉하면서 올바른 사고관점을 가지고 자신을 바로잡을수요 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막무가내로 저들의 주장만을 고집하면서 인란으로 반중국감정을 고조시켜왔다. 이번 보고서에 발표하기 전에도 미국에서는 중국의 군사력이 자국을 겨냥한것이라는 소리를 외쳐나왔다. 중국이 스텔스 전투기 《섬-20》의 시험비행을 진행하였을 때에도 미합중국본부의 장은 그것을 위성공중무기와 반함탄도미사일의 개발과 결부시키면서 중국의 현대무기개발이 《미국을 표적으로 삼고있을 것 같다》. 《니, 중국의 급격한 군비확장의도가 《불투명한것》이 항상 문제》라더니 워니 하며 우려와 불만을 표시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미군부는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섬-20》에 대응하여 이미 보유하고있는 스텔스 전투기 《F-22A》를 포함한 더 많은 스텔스 전투기들을 배치할것이라고 하였다. 중국은 자국의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 시험비행이 명백히 방위를 목적으로 한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그것이 군사적공격을 위한것이라고 우려

유럽적자 내상

유럽동맹 성원국들에서 올해 1월에 무역적자가 298억€에 달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12월에 비해